

‘열악한 인프라 개선·예산 확보’ 내년 시즌 과제

광주FC 2023시즌 결산
⑤·끝 ㄹ 무대 앞 당면 현안

논두렁 축구센터 개선 돌입
천연 잔디 2면...5월 중 완공
시 보조금 100억원으로 동결
차입금 30억... 추가후원 절실



광주FC가 새 시즌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나서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앞선다.

올 시즌 열악한 인프라와 부족한 예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서 어려움을 겪었던 성남FC와 경남FC 등 타 시도민구단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는 올해 K리그1에서 16승 11무 11패(승점 59)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와 승점 기록을 경신했고, 창단 후 처음으로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뒀다. 구단 역사상 첫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ACLE PO) 진출권을 획득했다.

광주 돌풍을 두고 일각에서는 ‘흑수저의 반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1부리그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광주가 전북현대와 FC서울, 대전하나시티즌, 제주유나이티드, 수원삼성 등 기업구단을 제친 게 기적이라는 의미다.

이정호 감독 역시 지난 3일 시즌 최종전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긴 뒤 3위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에 앞서 “우리의 목적은 확실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금이 큰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꼭 나가야 한다. 예산을 벌여 더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현실적인 각오를 밝혔다.

이 감독은 ACLE PO 진출이 확정된 후 “13년간 마음대로 훈련할 수 있는 연습구장이 없었다. 이제는 만들어주지 않을 까 싶고 환경적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뜻깊다”며 “선수들과 ‘만들여지게끔, 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고 했다. 이제는 많은 것을 해줘야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광주가 위기라고 생각한다. ACLE PO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많은 스카우트 문의가 올 것이다”며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벌써 시작됐다. 기회이자 위기가 올 것이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위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회와 위기의 길목에서 광주가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훈련 여건’과 ‘후원 확보를 통한 예산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 이정호 감독을 비롯해 선수단의 재계약 추진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현재 구단 전용 훈련장인 광주축구센터 천연 잔디 2면 재조성과 조명

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된 상황으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5월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추가적인 선물도 있다. 그동안 광주시 체육회에서 갖고 있던 광주축구센터와 광주축구전용구장 운영권이 내년 1월1일부터 구단으로 양도된다. 구장 이용과 잔디 관리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훈련 여건 개선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예산 확충은 여전히 난항이다.

광주시는 2024시즌 보조금 규모를 올해와 같은 10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삭감 기조에도 보조금 동결은 소기의 성과지만 추가 후원 확보가 절

실하다.

광주는 올해 예산이 초과돼 30억원을 차입했다. 현금 후원도 14억원에 그쳤는데 보조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시의 추경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다. 선수단 구성 역시 예산과 관련이 깊다.

아시아 무대에 나서는 만큼 선수단 구성의 중요성은 크다. 인천은 올해 더블스쿼드를 구축하며 리그와 ACL을 병행했고 과거 성남FC와 경남FC는 돌풍을 일으킨 뒤 선수단을 지키지 못하며 강등의 쓴맛을 봤다. 결국 구단과 시가 힘을 합쳐 시너지를 이뤄내야 지속적인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페퍼저축은행 박정아·오지영·야스민 KOVO V-리그 올스타전 출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아웃사이드 히터(OH) 박정아와 리베로 오지영, 아포짓 스파이커(OP) 야스민이 2023~2024 V-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박정아와 오지영, 야스민은 지난 12일 한국배구연맹(KOVO)이 발표한 도드람 2023~2024 V-리그 올스타전을 빛낼 40명의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11일 KOV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팬 투표에는 5만 8117표가 투표됐다.

이번 온라인 팬 투표에서는 남녀 K-스타와 V-스타 팀당 7명, 총 28명의 스타들이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 전문위원회 추천을 통해 12명이 추가로 선발됐다.

박정아는 온라인 팬 투표에서 3명을 뽑는 V-스타 여자부 OH 부문 2위를 차지했다. 박정아는 2만3350표를 획득해 김연경(3만9813표·흥국생명), 표승주(2만377표·IBK기업은행)와 함께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됐다.

오지영은 V-스타 여자부 리베로 부문



박정아



오지영



야스민

에서 가장 많은 1만9197표를 받아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야스민은 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V-스타 여자부 OP로 올스타전에 합류한다.

팬 투표 최다 득표 영예는 여자부 V-스타의 김연경이 차지했다.

김연경은 팬투표에서 3만9813표를 획득, 2020~2021시즌과 2022~2023시즌 올스타 팬 투표에 이어 세 번째 남녀부 통합 최다 득표자가 됐다.

남자부에서는 2만9031표를 획득한 K-스타의 신영석(한국전력)이 2020~2021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4시즌 연속 남자부 최다 팬 투표 득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V리그 올스타전은 내년 1월 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최동한 기자

‘2024→2027’ 이정호 감독, 광주FC 장기 집권 막 올렸다

계약 만료 앞두고 조기 연장
K리그1 3위 이끈 지도력 인정

프로축구 광주FC가 이정호 감독에게 지휘봉을 오는 2027년까지 맡기며 확실한 신임을 보였다.

2023년 K리그1 3위와 구단 최초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이끈 지도력을 인정해 재계약했다.

광주FC는 13일 이정호 감독과의 동행을 2027년까지 하기로 하면서 창단 이래 최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 2021년 12월 광주의 제7대 감독으로 선임돼 부임 첫 시즌인 2022년 25승 11무 4패를 거두며 K리그2 역대 최단 기간 우승을 이끄는 지휘력을 보여주며 2024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K리그1에 돌아온 2023년에는 ‘강등 1순위’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16승 11무 11패(승점 59)를 거두며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과 함께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ACLE PO)에 진출하며 구단 최초 ACL 진출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구단 역사상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와 승점, 창단 최초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 등 굵직한 기록도 다시 썼다.

또 2022년 4월·9월 두 차례의 이탈의



이정호 광주FC 감독이 광주FC와 재계약에 합의하며 오는 2027년까지 지휘봉을 잡는다. 사진은 이정호 감독이 지난 9월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후 기뻐하는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감독상과 K리그2 대상 감독상, 2023년 6월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으면서 계약을 3년 더 연장했다.

계약기간 동안 이 감독이 맡게 될 연봉은 리그 우승팀인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과 FC서울 사령탑이 유력한 김기동 감독과 함께 리그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광주가 명문 구단으로서 리빌딩 하기 위해선 올해

최고 성적을 이끈 이정호 감독과의 장기 계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시켰다”며 “광주FC 산하 유소년 선수들도 프로팀의 전술을 입혀 연계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단의 철학인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이정호 감독이 제격이라고 판단해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광주 선수단은 내년 1월 3일 소집, 태극치앙마이로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나 새 시즌을 준비하는 담금질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한규빈 기자